

기관돋보기 | 영생원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발견 및 보호, 적절한 약물·재활치료를 통해 조속한 사회 복귀를 목표로 이용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시설 이 있다.

옥전읍 삼청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영생원은 정신장애인 생활시설로, 이용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 수 있도록 사회적 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크게 일상생활·건강관리·재활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4가지로 나뉘며, 사회로의 복귀를 향한 의지와 지역사회에서 갖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리적으로 산중턱에 위치한 '농촌형 복지시설'로 서비스 제공에 많은 제한점이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풍성한 경험을 이용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으로 실시했던 프로그램이 평가가관 59개 시설 중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는 등 충북도내 우수한 생활시설로 자리매김했다.

〈편집자주〉

영생원(원장 최병철)은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신장애인의 자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시설의 정원은 217명으로 현재 127명의 이용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용인들의 퇴원을 늦추고 사회 적응 및 지역사회 복귀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생원의 서비스는 크게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재활서비스 4가지로 나뉜다.

첫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는 생활의 안전과 위생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 개인이 위생적으로 일상을 관리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둘째,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는 개개



옥전읍 삼청리에 위치한 영생원 전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재활 치유와 성장 지원하는 '농촌형 복지시설'의 표본

인의 건강 및 의료보건 관련 서비스를 간호사와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도움을 받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 및 공연 등에 참여하거나 관람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향한 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활서비스는 정신·정서·생활·체력재활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삶에서 주도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중 영생원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이용인들이 직접 시집을 발간하며 큰 성과를 이룬 경험이 있다.

초기에는 투박했던 글들이 자원봉사자와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시어로 변모했으며, 이를 기념해 개최된 출판기념회는 이용인들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응원을 바탕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렇게 이용인들의 깊은 고민과 노력, 모든 관계자들의 헌신과 지원이 어우러져 뜻깊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며 모두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던 활동이었다.

또한, 지역사회 복귀와 취업을 목표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이용인들은 사회 진출을 앞둔 시점에 코로나 19의 여파로 꿈을 펼치지 못하고 도전이 멈춰서는 안타까운 시간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후원자들과 독지가들의 지원을 받아 아담한 커피숍을 마련하여 현재 이곳에서 바리스타로서의 꿈을 키우며 실력을 연마하고 있다.

더 많은 연습과 준비를 통해 지역사

회의 커피숍에서 본인의 재능을 선보이는 날을 기대하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영생원은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지역 인적네트워크 연계를 위해 프로그램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산중턱에 자리한 '농촌형 복지시설'로, 지리적인 한계가 있어 초기에는 주변 인적자원 네트워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용인들에게 풍성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 개인택시 연합회의 정기적인 봉사활동으로 이용인들이 거리가 먼 외부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고, 15대 이상의 차량이 함께하여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진정한 동행의 의미를 더해주었다.

최병철 원장은 “최근 지역사회의 자립지원시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총칭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는 지역사회로의 복귀와 재활을 목표로 하는 탈시설화 개념이 등장했고 탈시설화는 단순히 장애인 시설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예산 지원과 인력 충원,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가서비스나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모든 장애인들이 삶의 질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영생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소중한 인연과 지원을 바탕으로 이용인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과 나눔 속에서 더 나은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충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확대

2024년 전통시장 경로당 등 46곳 시범 운영

충북도가 어르신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잡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 '일하는 밥퍼' 사업의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소통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부터 '일하는 밥퍼' 사업을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민간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작년 한 해 동안 전통시장, 경로당 등 총 46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1만2000명이 넘는 어르신이 참여해 농산물 손질, 포장 작업, 간단한 조립 작업 등을 수행했다.

이러한 활동은 어르신들의 꼼꼼함과 세심함이 큰 장점으로 발휘되어, 지역 상인들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일하는 밥퍼'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어르신들의 자부심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동시에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과로 뽑히고 있다.

충북도는 2025년을 '일하는 밥퍼' 사업 도약의 해로 삼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확장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경로당, 종교 단체, 민간 자원봉사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취지를 알

리는 설명회를 열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루 참여 인원을 현재 500명에서 1000명, 장기적으로는 1만명까지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더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도내 기업들과 협력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일감을 얻고,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다.

셋째, 충북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는 복지 모델로 자리잡게 할 계획이다.

넷째, 지역 언론과 SNS,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 성과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성공 사례를 홍보하며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홍보 영상과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세대와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일하는 밥퍼사업은 어르신들이 단순한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음을 증명하는 혁신적인 도전”이라며, “이제는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이 성공 모델을 확산시켜, 어르신들이 어디서나 존중받고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75세까지 확대 지원

충북도, 본인부담금 2만원 폐지 및 1인당 17만원 전액 지원

충북도는 지난 1월 8일부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시작된 2025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이 오는 2월 21일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존 72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액 2만원을 폐지해 바우처 카드 지원액 17만원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자기 진작과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번 기회에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2000명이 늘어

난 전체 3만7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충북 도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20세 이상 75세 이하(1950. 1. 1. ~ 2005. 12. 31.)로 농가당 농지소유면적(세대합산) 5만㎡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 여성농어업인이다.

행복바우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21일까지 접수받고 사용처는 의료·유희·여행성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식당, 미용실, 서점, 영화관, 안경점 등 전 업종으로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은 신청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생원에서 진행된 '썬타클로스 커밍 투 영생원' 크리스마스 행사.



영생원에 봉사활동을 온 학생들.

정부가 지원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을 확인해보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 전문가입니다.

돌보미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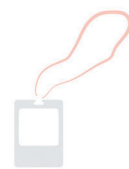
교육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만 가능



교육 수강
신규자 : 120시간
강연자 : 40시간

※ 강연대상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자격 소지자



채용 지원
교육 이수 후,
채용 연계 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채용 신청 안내



아이돌봄 대표 번호 <1577-2514>
아이돌봄 홈페이지 <www.idolbom.go.kr>



충청북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
고용 24<www.work24.go.kr>



진천군, 지난해 출생아 증가율 ‘충북 1위’

한해 출생아 504명 전년 대비 18% 늘어

진천군이 밝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군의 2024년 누적 출생아 수는 504명으로 2023년 보다 18%(77명)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충북 진천군의 아기 울음소리가 높고 있으며, 지난해 진천군의 출생아 수 증가율이 충북 1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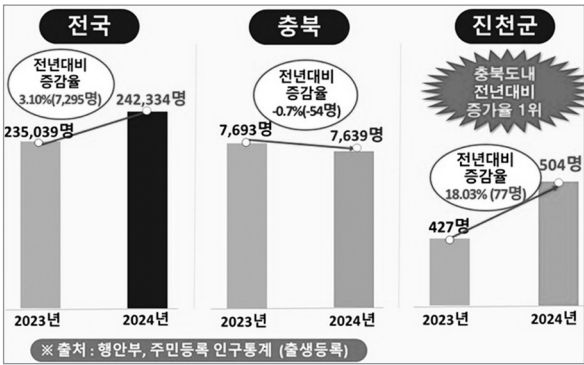
충북에서 두 자릿수 출생아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진천군이 유일하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출생아 수 증가율 3.1%(7295명)보다 훨씬 높다.

진천의 조출생률은 약 5.8명으로 이 역시 충북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조출생률은 1년간 특정 지역의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한다.

앞서 군은 지난해 7월 도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출생정책을 전담하는 저출산대책팀을 마련했다. 군은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 제정 등 출

■ 2023년 대비 2024년 출생아 증가율



생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1.0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명까지 끌어올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마

하 2.0+’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기섭 군수는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통해 출산과 양육, 보육과 교육에 이르

기까지 젊은 세대들을 겨냥한 출생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둔 게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제천시, 지역 특화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 활성화

올해 전체 341곳 경로당 중 256곳(75%) 참여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천형’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이 급변 사업추진 3년 차를 맞이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사업은 지난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전면 시행하여 경로당을 거점으로 노인들의 결식예방,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통한 돌봄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34개소 경로당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만족도 및 사업의 필요성 조사에서 긍정률이 98%를 차지했다.

지난해 246개소의 경로당에서 일 평균 약 4000명의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전체 341개소 경로당 대비 75%에 해당하는 256개소 경로당의 참여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다.

또한, 시는 사업 참여 경로당 평균 식사 인원수에 따른 지원구간을 4개 구간에서 6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더욱 체계적으로 부식비 및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있다.

부식비는 20인 기준 월 25만원 인상, 정부양곡은 20인 기준 연간 20kg(최대 24포)으로 상향해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경비부담을 해소하는 등 경로당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지속적으

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천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급식지원 및 돌봄 강화를 위해 복지매니저를 배치하고 있으며 식사인원 15명 미만은 1명, 15명에서 30명 미만은 2명, 31명 이상은 3명을 지원하여 2025년에는 385명이 노인역량 활용사업에 참여해 일자리창출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그 밖에도, 올해는 노인들에게 균형잡힌 식단 제공과 식단 준비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표준 식단을 제작·배부할 예정이며, 경로당 요리경연대회를 통해 만들어진 레시피 북과 달력을 경로당에 제작 배부하고 있다.

음성군, 인구정책 올해도 지속 운영

내고향 주소찾기·부서 전담제 등 유입 정책 성과

음성군이 군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인구정책이 결실을 맺으며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2017년 이래로 계속해서 감소하던 음성군 인구수가 ‘내고장 음성’ 사랑 주소찾기, 부서 전담제,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운영 및 주거·복지·문화·환경 등 전방위적 인구 유입 정책의 성과로 7년 만에 인구증가세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내국인 인구수는 9만1236명으로 2023년 12월 말 인구수 9만1183명 대비 53명이 증가했다.

군은 지난해 출생(281명) 사망(982명) 비율이 1:3.49로 자연 감소세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6월부터 인구 증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8월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에 힘입어 세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전국 군 단위 지자체에서

최근 3개월간 세 자릿수 증가를 나타낸 곳은 충북 음성군, 충남 예산군, 홍성군, 전남 무안군 4곳에 불과하고, 이중 음성군은 3개월간 859명이 늘어나며 가장 높은 인구증가세를 나타냈다.

군은 이러한 기세에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음성’ 사랑 주소찾기’에 Stay(머무름) 운동을 더해 인구 증가를 꾀한다.

각 마을 이장과 협업체 ‘마을1전입’ 운동 실시로 실거주하는 숨은 인구를 발굴하고, ‘기업체 및 대학교에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운영과 ‘부서 전담제’를 통해 관계기관과 단체에 적극적인 전입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군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 목돈마련을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5년 만기 4800만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병국 군수와 음성군으로 전입한 지역주민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 100만원), 초 다자녀(5명 이상) 가정 지원(18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및 교통비(각 50만원) 지원 등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총 4816세대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예정으로 가파른 인구 유입을 전망하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국립소방병원의 단

계적 개원,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 사업 본격 착공,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계획수립 등 주거 기반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단순 전입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정착해 머물 수 있는 ‘Stay 운동’의 일환으로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유응모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충주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전액 지원

충주시 거주 18세~26세 여성 누구나 혜택

충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가다실9’ 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여성 건강을 선제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궁경부암 예방효과가 뛰어난 가다실9 백신 접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부터 26세(1998년생부터 2006년생) 여성

으로 한정되며, 이미 가다실4나 서바릭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제외된다.

예방접종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접종 이후 2개월 뒤 2차 접종, 2차 접종 이후 4개월 뒤 3차 접종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단, 1차 접종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받는 접종까지만 전액 무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기간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혜택을 유지하려면 접종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충주시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

올해 충주로 전입한 대상자는 지원 대상자 명단으로 등록되기 위해 충주시 보건소 예방접종실(☎043-850-3536~3539)로 문의해야 한다.

접종은 충주시 지정 병·의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다실9 접종으로 96.7%의 자궁경부암 예방효과가 있으며, 이는 여성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접종”이라며, “많은 시민이 예방접종에 참여해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확대

토요일 즉시 콜 서비스 도입

단양군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전 조치로 기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던 특별교통수단 서비스가 토요일까지 확대된다.



단양군 운행 즉시 콜 차량.

군은 특별교통수단 7대를 활용해 토요일에도 관내 즉시 콜 서비스와 관외 예약제를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확대된 운영 방식에 따르면, 토요일에는 관내 전용 차량 2대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즉시 콜 서비스로 운행되며, 나머지 5대는 관외 이동을 위한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는 관내 이동 수요가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마련된 정책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주시, ‘결식 우려 아동 급식지원’ 단가 인상

1식 지원단가 500원 상향한 9500원

청주시는 ‘결식 우려 아동 급식지원 사업’ 1식 지원 단가를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호자의 맞벌이, 질병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카드(아동급식카드)를 지급해 일반음식점 등 아동급

식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아동급식카드는 아동의 보호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신청 후 결식 우려 여부를 확인해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아동급식가맹점 신청

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하거나 푸르미코리아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등록 가능한 업종은 아이가 일반음식점 등 한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주류(안주류) 위주 판매, 휴업소, 1일 카드사 용한도(25000원) 내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고급음식점, 디저트 위주의 카페 등은 제외된다.

청주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횟수 확대 시행

저소득 청년 월 20만원씩 지급… 2월 25일 신청 마감

청주시는 올해 1월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지원횟수를 기존 12회에서 24회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원 한도에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

이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 시행돼 2024년 12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으며, 2차 사업 신청은 2024년 2월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접수한다. 2차 사업 지원금 지급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저소득

청년들은 1, 2차 사업 구분 없이 인당 최대 24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60% 이하, 원가구 재산 4억7000만원, 청년가구 1억22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최소 30일 이전	
	즉석식품	면류(리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장류 및 식용류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최소 3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공류	햄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7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달일)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충북광역기부식품증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법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영동군, 초등 돌봄교실 급식비 전액 지원

영동초·이수초 지원 시작 3월경 7개교로 확대

영동군이 올해부터 초등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영동지역 내 초등 14 곳에서는 방학 중 돌봄교실 급식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매식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고 특히 최장 5주에 달하는 여름방학 동안 급식비 부담이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은 올 1월 겨울방학부터 영동초와 이수초를 시작으로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로써 매식을 선택한 학부모들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아이들이 균형 잡힌 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돌봄교실 급식비 지원은 '2025년 영동군 교육경비 지원사업'일환으로 군은 올해 지역인재 육성, 우수체육 선수지원, 학교체육 내실화 등 총 8억 2000여만원을 투입해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 중 돌봄교실 급식비 지원 사업에는 5200여만원이 배정됐으며 이번 겨울방학기간 중 영동초와 이수초에 1500만원을 지원한다. 3월부터는 3700여만원을 투입해 지역내 7개 초등학교로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2024년 행정안전부

‘늘봄학교 협력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돌봄 환경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돌봄교실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들의 큰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지원이 확대된다면 영동군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 정책과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동군, ‘인생 첫 컷 돌사진 지원사업’ 확대 추진

촬영비 20만원 지원… 전국 사진 촬영업소 가능

영동군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기금으로 시행하는 ‘인생 첫 컷 돌사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돌사진 촬영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상향 지원하며,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관내업소에서 제한 없이 전국의 사진 촬영업소로 확대했다.

군은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돌사진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2024년 1월 이후 출생아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상향 지원하며,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관내업소에서 제한 없이 전국의 사진 촬영업소로 확대했다.

군은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돌사진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2024년 1월 이후 출생아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상향 지원하며,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관내업소에서 제한 없이 전국의 사진 촬영업소로 확대했다.

지원금 신청은 돌 전후 60일 이내에 청구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한편 군은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 가정 및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저출생 및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다.

보은군, 철도 유치 10만 서명운동 ‘총력’



보은군민들은 철도 유치를 위한 법군민 서명운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3월까지 10만명 서명 받아 국토교통부 전달 예정

충북의 시·군 중 유일하게 기차가 통과하지 않는 보은군이 철도 유치 법군민 10만명 서명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다. 군에 따르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청주공항~보은~김천’ 노선과 ‘청주공항~보은~포항’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은 보은군 철도 유치위원회(위원장 유철용, 이하 유치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유치위는 기관·사회단체 등의 협력을 받아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회의, 교육에서 서명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군은 군청 민원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서명부를 비치해 받고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명 창구를 개설해 출항인 등의 참여도 촉구하는 중이다.

철도 유치 서명운동에는 지난 16일까지 1만5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설 명절을 맞아 귀향인들이 동참하면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유치위는 3월까지 전체 군민 수(3만527명)의 3배가 넘는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보은군, 친환경 저상버스 첫 운행

6월 1대 추가 도입… 교통약자 배려 정책 확대

보은군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 운영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군에 처음 도입된 친환경 저상버스는 차고가 낮고 출입구에 계단 없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이 쉽게 승하차할 수 있으며, 차내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장애인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해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고 소음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330번·340번·410번·610번·620번 노선의 삼승면 원남리,산외면 길밭·원평·이식리,수한면 관촌·거현리 방면 승객들이 편안하게 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오는 6월 버스 1대를 추가 도입해 2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옥천군,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사고 대책 추진

보험 청구 시 본인부담금 5만원 지불… 최대 2000만원 지원

옥천군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하지만 인도는 좁속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금액을 부담해야 된다.

이에 군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보험 청구 시 본인부담금 5만원을 지불 해야되며, 자기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보험 기간은 1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로, 지원 대상자는 옥천군에 거주하며 주민 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등으로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 청구는 전화(☎02-2038-0828, ARS 1번)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군, 농림축산식품부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 선정

주말 돌봄방 운영 2월 원아 모집

괴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보육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농번기 주말에 돌봄방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은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2166만원(국비 1083만원, 도비 433만2000원, 군비 649만8000원)을 투입한다.

사업 기간은 2025년 농번기 중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운영된다.

원아 모집은 내달 2월에 시작하며, 돌봄 대상자는 지역 내 거주 만 2세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의 어린이다.

군은 우선순위를 설정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1순위는 부모 모두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가

정, 2순위는 부모 중 1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 3순위는 부모 모두 비농업인 가정으로 구분해 모집을 진행한다.

군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농번기 동안 어린이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양육 부담을 덜 계획이다.

특히, 군은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사업’과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괴산군이 준비 중인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은 행복칠성보급자리주택 내 커뮤니티

티센터터를 활용해 어린이와 유아가 자유롭게 안전하게 놀수 있는 베이프리 통합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군은 실내 놀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더욱 풍성하고 안전한 놀이환경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보육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일것다고 밝혔다.

송인현 군수는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과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괴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증평군, 거동 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65세 이상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보행 불편’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통급인 A, B 제출 불필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이내 실제 구입비 지원

1회 지원 / 5년 (수리비 본인부담)

장기요양, 장애인 등 유사사업 지원 시 제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65세 이상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증평군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

고 20일 밝혔다.

성인용 보행기는 거동이 불편해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어

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도와주는 보조기이다.

지원 대상은 증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자.

지면	규격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300,000
	제오 옆 돌출 (67mm x 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 ~ 7면	4단 (360mm x 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250,000
	세로포스터 (150mm x 195mm)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SSN충북사회복지협의회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

급여액 · 기준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 · 하한액 조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 · 하한액을 조정하기로 10일 밝혔다.

먼저,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2.3%, 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2024. 9월 기준)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

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 · 하한액 조정을 의결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기준소득월액 상 · 하한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구분(가구)	'24년	'25년	증가액(증가율)
노인 단독	33만 4,810원	34만 2,510원	7,700원(2.3%)
노인 부부	53만 5,680원	54만 8,000원	1만 2,320원(2.3%)

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전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 · 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2024년 33만4810원에서 2025년 34만25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든든한 버팀목 역할

901명의 위기임산부 상담 · 지원 및 취약아동 보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작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출산부터 아동보호까지 공적체계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되어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하게 된다.

그간 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구축하고, 제도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례적인 지역상담기관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17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901명 중 178명의 심층상담 결과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원가정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

한 임산부는 19명,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으로 제도 시행 후 6개월 동안 163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전 익명 아동 유기는 매년 약 100~200명 규모로 지속 발생하였고,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유기아동 3061명의 상담수가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스스로 키우기 힘든 사람들이 두고 가는 아이들을 긴급히 보호하고 돌봄을 제공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다만,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이 공적상담기관으로서 위

기임신상담과 서비스를 지원원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지자체에 연계보호하는 체계가 구축됐다.

'아동복지법'은 지자체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자체에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박스 등 공적체계 외의 기관에 방문한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해당 기관은 지역상담기관의 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기아동이 발생했다면 공적 체계하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당 아동을 지자체에 즉시 보호조치 의뢰하여야 한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위기임산부들이 보호출산제를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강화

취약계층 대상...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여성가족부는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1만2000원 인상하여 1인당 연 16만8000원까지 지원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

의 9세부터 24세(2000. 1. 1. ~ 2016. 12. 31.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며,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또는 양육자)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생리용품 구매권은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 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

—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

— 지원금액 —

월 14,000원(만우천 원 지급)
※ 비우천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매 가능

— 문의처 —

구분	문의처
지원대상 해당여부,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배우자 간액 이용방법, 가맹점 문의	배우자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문의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신한카드 1544-8868
	KB국민카드 1599-790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홍보포스터.

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

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 · 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

서비스 돌봄수당 4.7% 인상 및 영아 돌봄수당 신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해왔다.

여가부는 이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올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기

로 했다.

또한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준 중위소득 120~150%' 가구에 대해서도 그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이들 가구의 자녀 연령대에 따른 정부 지원 비율(1자녀 기준)은 0세부터 5세 20%, 6세부터 12세 15%였으나, 올해부터는 각각 30%, 20%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는 대상도 올해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부는 수요가 늘어난 만 0세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들의 시간당 돌봄수당은 올해 12180원으로 4.7%(550원) 오른다.

또한, 업무강도가 높은 영아(0세부터 2세)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수당을 추가로 준다.

앞서 여가부는 아이돌보미가 원거리를 이동할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 지역을 기존 섬, 벽지, 읍 · 면 지역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까지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등을 대상으로 단축 교육 과정을 신설해 아이돌보미 공급을 늘리고 있다.

올해 장애인연금 최대 43만2510원 지급

소비자물가변동률(2.3%) 반영 전년 대비 770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2510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7700원 인상한 34만251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20일 급여 지급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25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2510원을

받게 된다.

한편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8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대비 단독가구는 8

만원, 부부가구는 12만8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 · 재산 수준 변동 등 반영해 결정한다.

이에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취약계층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한도 확대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 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 · 고시하여 올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 · 단시간 · 파견 · 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

데, 1월 1일부터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보다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된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시설 입 · 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를 부담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원 소진 시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구직자들의 훈련 기

회도 확대된다.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되어 있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한 단체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 지원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관리

봉사활동 연계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충북도가 지난 14일 당산 생각의 벵커에서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의 더 큰 대도약을 위한 성공기원 발대식을 열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발대

사회복지시설 · 소상공인 등 참석... 유관기관 협약도
내달부터 본격 시행... 연인원 30만명 이상 확대 추진

충북도는 지난 14일 당산 생각의 벵커에서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의 더 큰 대도약을 위한 성공기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업 추진의 핵심 축을 이루는 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수행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업무협약식, 사업 성과보고, 성공기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특히, 유관기관 협약식은 기업인,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이 도시근로자 사업을 적극

적으로 신청 · 활용하고, 협약기관이 보유한 우수 유휴 인력의 도시근로자 참여 네트워크와 홍보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등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단시간 근로로 매칭하는 전국 최초, 전국 유일의 틈새 일자리 사업이다.

2022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전 시군으로 확대되어, 2024년 소상공인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결과 지난해 연인

원 10만5000명을 돌파하고 정 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도정 최우선 과제는 좋은 일자리”라면서, “앞으로 도시근로자의 성공적 추진 뿐만 아니라, 도시농부, 일하는 밥퍼, 영상자서전 사업 등을 통해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혁신적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도시근로자 사업은 2월부터 본격 시행하며, 금년도 확보한 33억원의 사업비로 연인원 10만명 달성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연인원 30만명 이상으로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근로를 희망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기업과 소상공인은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는 최저시급인 1003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 근속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과 기업 및 소상공인은 충북도 일자리정책과(☎043-220-3371~4) 및 일자리종합지원센터(청주 · 보은 · 증평 · 단양), 한국산업인정협회(충주 · 옥천 · 영동 · 진천 · 괴산 · 음성), 제천단양상공회의소(제천)에 문의 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수행기관 홈페이지 내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삼보사회복지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나세요”



삼보사회복지관 직원들이 발열내의를 마친 후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유니클로 히트텍 지원사업
후한기 취약노인 55명 전달

삼보사회복지관(관장 정태선)이 지난 13일 희망열기 캠페인 ‘유니클로 히트텍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유니클로의 지원을 받

아 후한기 취약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실시됐다. 대상자는 삼보사회복지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후한기의 의료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55명이며, 1인당 발열내의 2매씩 전달됐다.

정태선 관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고, 지원해주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유니클로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은퇴 노인 사회활동 돕는다

‘탄탄대로’ 사업 선정
2월부터 참여자 접수

청주내덕노인복지관(관장 김혜정)은 은퇴 노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라탄 등공예사 지도자 양성과정인 ‘탄탄대로’ 사업이 2025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탄탄대로’ 사업

은 노인들이 라탄 등공예사 지도자 양성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사회활동을 위한 자조모임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참여자들은 자조모임을 통해 만든 라탄 등공예 작품을 저소득 독거노인 세대 또는 유관기관에 나누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과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직접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 참여자들이 제작한

작품으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탄탄대로’ 사업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2000만원의 지원받아 라탄 등공예사 지도자 양성과정과 사람의 손길 프로젝트(나눔, 교육, 전시 등)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사회참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사회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이달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운영하며 2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으로 참여 의사가 있는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내덕노인복지관(☎043-216-981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정 관장은 “이번 탄탄대로 사업을 통해 노인들이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참여자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청댐노인복지관, 사랑샘터 이동세탁 홍보

수자원공사 사회공헌사업
취약계층 위한 서비스 제공

대청댐노인복지관(관장 김현조)은 충북 보은군 회남면 거교1리, 신추리, 신곡리, 회인면 쌍암3리, 용곡2·3리 마을 등을 방문하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 사랑샘터 이동세탁 서비스 사업을 홍보했다.

사랑샘터는 이동세탁 차량을 활용하여 사업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이동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이번 홍보는 사랑샘터 이동식 차량을 이용해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을 담당자와 대상자 가구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사업의 취지와 사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사랑샘터 이동세탁 서비스 지원 차량.

업 내용을 알렸다.

이번 사업 참여자는 “이불빨래 한번 하려면 큰 마음 먹고 해야하는데, 세탁 차량이 직접 집 앞까지 와줘서 세탁을 해준다니 너무나 큰 도움이 돼 자주 활용하고 싶다”고 기대의 반응을 전했다.

케이워터나눔복지재단(대표 김지찬)이 설립 · 운영하고 보은군이 운영지원하는 대청댐노인복지관은 대청댐 주변지역 보은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종합적인 복지증진을 지원한다.

영동군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참가자 모집

내달 14일까지 선착순 접수

영동군보건소는 2024년 큰 호응을 얻었던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의 2025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활동량계와 모바일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APP)을 활용해 보건 전문가(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건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스마트폰 소지자로, 영동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다만 당뇨



영동군보건소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

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진단받았거나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모집인원은 총 65명으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모집 기간은 2월 14일까지다.

신청은 군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

하며, 정원이 초과됐을 경우 조기 마감된다.

신청자들은 2월 중 사전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등 5가지 건강위험 요인을 점검한 후 상담을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블루투스 연동 스마트워치 활동량계와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해 24주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동량계를 이미 보유한 경우 이를 활용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우수 참여자 및 미션 달성자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25년 1월 3일(금) 17시 / 4일(토) 10시 장소 : 청주시장애인종합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휴먼케어, 장애인활동지원 ‘최우수’

충청권 유일... 1500만원 지급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이사장 송유정)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에 따라 2024년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난해 전국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42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활동지원급

여의 제공절차, 방법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 활동지원사 및 전담인력 등 종사자의 인력관리 및 처우개선, 활동지원기관 이용자의 만족도 등 다각적인 측면의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충청 기준으로 최우수 기관 35개소 중 상위 10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및 현판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는 충청권 유일하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5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수령하게 된 것이다.

송유정 이사장은 “급변하는 복지환경에서 청주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 장애인복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사회복지 유관기관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유복지플랫폼

‘충북복지넷’



2025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보건복지부

■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가임력 향상·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임기 남녀로 올해 1월 1일부터 확대된다.

*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리학적, 행동학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WHO, 2013)

결혼·자녀 수 무관 모든 가임기 남녀(20~49세)에게 주요 주기별* 1회, 총 3회 지원하며, 여성에게는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 포함 검사에 최대 13만원을,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검사에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이를 통해 가임기 남녀가 조기에 고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중재·치료하고, 적기에 건강한 임신·출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가 차상위 계층 아동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자립을 위한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만 0~17세)이며,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 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에서 2배의 금액을 정부가 매칭 지원한다.

사용방법은 만기(18세) 해지 후 자립을 위한 용도(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등)로 사용 가능하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을 쓸 것이다.

■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 확대

2025년부터 국민의 건강 보장권 향상을 위해 C형간염, 골다공증, 정신건강 등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C형간염 검사를 56세 대상으로 신규 도입하였으며,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한하는 골다공증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골다공증 검사 대상을 54세, 66세 여성에서 60세 여성까지 확대하여 총 3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20~34세) 대상 정신건강검사(우울증검사)의 검진 주기가 단축(10년→2년)되었으며, 조기 정신진 검사가 신규 도입됐다.

고용노동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예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지원하였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기업에게 채용장려금,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도 개편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약지원형'을 신설하여 무상지원금 한도를 상향한다.

*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정을 받은 사업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한도 10억)을 전액 지원받은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5억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무상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신규 채용 기준 금액을 기존 3000만원당 1명에서 4000만원당 1명으로 완화하여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계좌 한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환산액은 209만627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휴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준비해왔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들어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에게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한다.

최소한의 학업을 성취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졸업 요건을 정하는 한편, 학생에게 최소한의 성취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보충 지도를 제공하는 등 학생의 학업성취를 학교가 책임지고 지원한다.

교육부

■ 늘봄학교 지원대상 확대

2025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 지원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1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12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원 → 250만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달) 200만원 → 2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250만원 → 3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출 시 월 통상임금 상한액: (최대) 200만원 → 220만원



2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14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육아휴직: 1년(3회) → 1년 6개월(4회 분할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 20일(4회 분할 사용 가능)

난임 치료 휴가: 3일(유급 1일) → 6일(유급 2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 → 12세, 최대 3년

출산 전후 휴가(미숙아 출산 시): 90일 → 100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혜택 적용 확대: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한 근로자도 혜택 적용 가능



3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16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월 80만원 → 월 120만원 지원 / 육아휴직,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

업무 분담 지원금: 월 20만원 지원 /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지원(2024. 7. 1. 신설)



4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75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시행일: 2025년 3월 4일

생계급여 중 임신부·영유아·초종고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정된 사용처에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1인 가구 월 4만 원~10인 이상 가구 월 18만 7천원(4인 가구 기준 연 최대 100만 원)

•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현우유, 산신달걀, 육류, 잡곡류, 두부류



5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349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범발급(2024년 12월 27일), 전면발급(2025년 1분기 중)

2025년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 실제 발급 시기는 추후 공지 예정



6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69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

시행일: 2025년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월 최대 2.4만원→3.3만원, 5년간 최대 144만원→198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성실납입자(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는 5~10점 신용점수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누적 납입금의 최대 40%까지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정부기여금 지원 확대

월 최대 2.4만원 → 3.3만원

5년간 최대 144만원 → 198만원

신용점수 추가가점

최소 5~10점 이상

부분인출 서비스 신규 도입

2년 이상 가입자로 누적 납입금액의 최대 40% 이내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4년에는 초등 1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였으나, 2025년에는 희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이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고,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지역대학,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의 공급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2025년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업 여건 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소득과 연계하여 대학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장학금 I 유형, 다자녀 장학금 등으로 구성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5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5조305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846억원 확대 편성됐다.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8주간 이하(100만명)에서 9주간 이하로 확대하여 총 150만명의 학생에게 최대 100만원 등*을 지원하고,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 및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 다자녀 첫째, 둘째는 최대 135만원, 셋째 이상은 최대 200만원

또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원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 아이돌봉사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봉사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2만 가구로 늘린다.

아이돌봉사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을 신설하여 영아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 영아(36개월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에게 돌봄수당 추가 지원

정부지원 비율이 낮았던 ‘다(기존 중위소득 120~150%)형과 ‘초등학교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 지원한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

2025년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미혼모·부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존중위소득 63%이하)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존중위소득 65%이하)의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학용품비(1인당 연 9만3000원) 지원대상을 중·고등학생 자녀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소득기준 판정 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거주 기간을 연장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출산지원시설은 입소가 소득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인위귀기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며, 퇴소 후 재가 생활 곤란 시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도 강화하여, 매입임대 운영호수를 306호에서 326호까지 확대 추진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월 지원금액 인상

여성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생리용품 바우처 월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액이 월 13000원에서 월 14000원으로 인상되어,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 선택권이 강화된다.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앱,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확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피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부터 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이 인상(월40만원 → 월50만원)되고 대상자(340명 → 440명)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 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예약으로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그간 지자체별 예약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여 이용자 등록서류·절차 등이 중복되고, 예약방법도 달라 광역권 이동이 불편한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예약시스템을 2024년에 구축했다.

2025년에는 현재 지자체 시스템과의 연계-통합 점검 등을 위해 시범 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여 2025년 5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리하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교통약자의 승차권 구매 접근성 강화

온라인 예매 이용방법 및 핸드폰 조작 등이 서툴러 실제 예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교통약자의 명절 승차권 예매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4년 설명절 승차권 판매 시 교통약자의 예매기간을 늘려 1~2일차는 교통약자(1일 추가 확대)에게 우선권을 주고, 디지털 안내 전담직원을 주요 철도역에 배치했다.

2025년에는 이와 더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신형자동차배기 개발 및 설치 추진하여, 장애인 등 이용자에 원격으로 매표를 지원, 교통약자 승차권 발급* 편의를 제고하도록 할 것이다.

* 월체어 접근성 용이, 음성·자막 제공, 직원 호출(영상통화)기능 포함 등

■ 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및 적용 지역 확대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의 혜택 및 적용 지역이 더욱 확대된다.

* 월 15회 이상(최대 60회)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한 대중교통비의 20~53% 환급

현재 일반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다자녀 가구(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혜택이 신설된다.

또한, K-패스 적용 지역이 현재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025년부터는 210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출처:기획재정부)

신년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신개념 노인복지정책 확산 노력”

작년 지역발전 가속 성장동력 마련
중기·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
‘일하는 밥퍼’ 생산적 복지모델 정착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장과 지혜, 유연한 변화의 상징인 ‘푸른 뱀’의 기운이 충북 곳곳에 전달되어 도민 모두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충북은 변화와 혁신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워 열매를 맺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55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었고,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인 9조 93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든든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생계지원, 자존감 회복, 시장 경제 활성화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보여주는 ‘일하는 밥퍼’사업은 신개념 노인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으며 충북 전역으로의 확산을 준비 중이고, 누적 수혜자 1200명을 돌파한 의료비 후불제는 서울시와의 우수 정책 교류를 발판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영상자서전은 1만5000건 활영을 돌파하며 충북을 대한민국 문화강도(強道)로 도약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충북형 일자리 사업인 도시근로자, 도시농부의 성공적 정착은 지역경제와 도농 상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으며, 100% 국산 감치의 가치를 담은 ‘어쩌다 못난이 김치’는 1000톤 이상의 판매 실적을 달성하며 충북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지만, 그 모든 걱정을 뒤로 하고 도민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지지와 응원 속에 혁신의 열매들이 하나 둘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는 ‘숨쉬는 땅, 씩씩있는 생활, 씩씩한 행복, 삶의 터전 충북’의 앞글자를 딴 ‘숨, 씩, 씩, 삶’을 새해 화두로 삼아 도민이 행복하고 삶이 풍요로운 충북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기업정주여건 개선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쇼룸발판 지원, 창업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등민생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 고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충북만의 특색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인 ‘문화의 바다’ 조성과 충북아트센터,



도립 미술관, 문학관, 그림책 도서관 등을 포함한 ‘문화의 바다 그랜드 프로젝트’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소비 365, 도립극단 공연 확대를 통해 도민들의 문화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영동세계국악엑스포와 제천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충북의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내 최초로 철도 선하공간을 혁신적으로 활용하고 도청 본관을 그림책 도서관으로 만들어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등 유류자원 업사이클링으로 새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자연정원을 만들겠습니다. 청남대를 전 국민이 찾는 대한민국 자연정원으로 만들고, 구 청공교는 ‘브릿지 가든’으로 업사이클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주 장원도시 조성, 민간정원 확대 등 자연정원 조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넷째, 도민이 만족하는 좋은 복지로 든든한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확산 일로에 있는 ‘일하는 밥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함께 근로’ 등 취약계층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지원, 최종중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최저생활보장 등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작은 결혼식(200만원) 지원,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120만원) 지원을 비롯하여 기존 저출생 대응 정책들을 본격화하고, 출산·돌봄까지 전주기적 출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늘어나는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충북형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인통합지원센터 설치는 물론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 정착 지원을 위한 K-가디언(100팀)제도로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성공적으로 인착시키겠습니다.

올해도 변화와 혁신을 향한 충북의 도전과 개혁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을사년(乙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년사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

“민생 살피는 일, 의정역량 집중”

충청광역연합 출범 지원 중심 역할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 등 현안해결
전제·감시 충실… 주요 정책 추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해 충청북도의회는 먼저 민생현장으로 깊숙이 다가가며 도민과 소통했습니다. 도민과 소통하며 민생현장에 적극적으로 나서 시·군 순방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해 현장과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을 찾아 어려움을 살폈습니다.

또한, 의료붕괴 방지, 대학 통합, 공공배달업 활성화, 미호강 치수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지역 현안 해결에는 발로 뛰어 앞장섰습니다.

12대 후반기 의회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뛰어 적극 대응하였으며, 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제의를 이끌어내고, 한우농가 안정,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 교권 보호 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지원하며 충청광역연합 의장에 노금식 의원을 선출, 충북도의회가 메가시티 건설의 중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인구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지역 현안 해결 등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을사년(乙巳年)의 출발선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도민을 섬기며 일 잘하는 의회’를 목표로 출범한 제12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는 새해 새 아침, 첫 마음으로 도민부터 챙기겠습니다.

2025년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국내의 정세는 물론 경제 전망 또한 밝지 않으며 민생 지표 역시 나아질 기미가 크지 않습니다. 깊어 가는 불황의 늪에서 더욱 팍팍해지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무엇보다 걱정입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서른다섯 명의 도의원 모두는 도민과 고락을 함께하며, 민생을 살피는 일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체인 충청광역연합과 첫 조광역의회인 충청광역연합의회의 성공적 출범과 정착을 견인하겠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과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생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들을 지원하며, 도



민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의회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서민경제 안정에 더욱 노력해 민생의 길을 열고 새로운 성장 동력에 불씨를 지피겠습니다.

둘째,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로 민의를 대변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주요 정책들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살피겠습니다. 불합리하거나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은 철저히 바로잡겠습니다.

당면한 지역 현안을 앞장서서 해결하고 충북의 미래를 위한 주요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힘을 합쳐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혁신하는 의회, 역동적으로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충청북도의회가 독립 청사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도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도민의 삶을 견인해 진정한 지방자치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도민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며 도민의 내일을 든든하게 이끌어가는 충청북도의회가 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는 단결과 도전으로 용감하게 이겨냈습니다.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충북 경제에 희망을 불어넣고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혜와 신중함을 상징하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 충청북도의회는 거문고의 줄을 새로 단단히 조이고 바꾸어 맨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오는 7월, 70년 만에 마련하는 새 청사에서 다시, 더 높이, 더욱 힘차게 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의 여정에 저희 도의회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년사

유응모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하나로 뭉쳐 충북사회복지 도약”

충북광역푸드뱅크 ‘전국 2위’ 성과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집중
올해 설립 40주년… 상호 협조 기대

존경하는 충북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기찬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느해 보다도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미래의 희망이란 빛을 그리워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아 충북 사회복지 모든 종사자의 가정과 직장에서 희망 꽃이 활짝 피어 평소 즐거움과 삶의 보람이 늘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입니다. 동양문화에서는 뱀은 지혜와 재생의 상징으로, 특히 올해는 결단력과 지혜로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해로 여겨집니다.

또한, 고난을 딛고 새로운 길을 여는 해로, 새해에는 묵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에 적합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징성이 여러분 개개인과 우리 충북 사회복지 전반에 큰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9년여간 위탁 운영해 온 “충북하나센터”가 새해부터 남북하나재단의 직영 체제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충북광역푸드뱅크는 지난해 전국 2위의 우수한 사업 실적을 달성하며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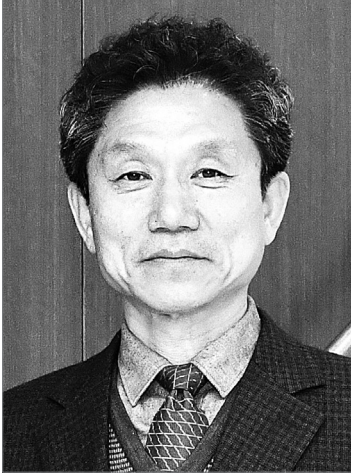
이를 기반으로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강내면 태성리에 약 600평 규모의 물류센터 공간의 계약 체결을 완료해 현재 내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내에 충북 지역의 푸드유통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새해부터는 기부물품조정배분과 기초푸드뱅크 및 마켓 컨설팅, 종사자 워크숍 등을 더욱더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충북지역의 구호물자를 상시 확보하여 긴급구호 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충북광역푸드뱅크의 독립적 성장과 확대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법적 요건도 충족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사업은 수요의 욕구가 많아져 교육의 횟수를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강사진도 변화를 시도 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서비스 사업인 법률홈닥터도 재조정 받아 지속적으로 충북지역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의 재수탁도 새해부터는 3년에서 5년으로 약정기간을 확대하여 충청북도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로운 과제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의무설치가 급년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충북은 13개 시·군이 있는데 현재 증명군이 미설치되었으나 최근 증명군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규 설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설립은 되었으나 그 기능과 역할이 전무하여 올해 민관이 협력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자 충주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단양군사회복지협의회도 좀 더 내실 있는 활성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올해의 충북사회복지대회의 개최지는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 대추의 고향 보은에서 알찬 대회로 열리게 됩니다.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풍성한 대회를 위해 보은군과 긴밀한 협력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올해가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동안 추진한 귀한 사업들을 아카이브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 의미가 깊은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와 새로운 도약에 충북사회복지시설, 기관이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 상호 협력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주시길 당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 사회복지사의 상호협조가 절실히 필요하고 서로 서로 협력할 때 더 큰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충북 사회복지계의 모든 영역에서 하시는 복지서비스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시고 사회복지사 개인의 새해 소망도 모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충북 사회복지사 가족의 가정과 사회복지기관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똑똑똑! 법률홈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이 딸의 법률상식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여부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제 아들이 얼마 전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 다른 사람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제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었고, 지금까지 오토바이 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나요?

A. 우선 아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책임능력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책임능력이란 법률상 책임을 번식할 능력으로(민법 제753조) 책임능력 유무는 연령이나 학식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대체로 만 12세까지는 책임능력을 부인하고, 만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는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아들에게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아들이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독의무자인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손해에 대하여는 친권자인 부모의 '개별적·구체적 감독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판례의 구체적 태도를 살펴보면 부모와 같이 사는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위의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었고 무사고경력의 경우에는 부모의 과실을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아들에게는 청구할 수 있으나 아들의 부모인 감독의무자에게는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이전 소식

- **충북하나센터**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487, 서울우리병원 302호

인사동정

- **감물다함께돌봄센터**
▷ 센터장 전영의 / 1월 1일자

- **어린이재단 청주사회복지관**
▷ 기관장 한전복 / 1월 1일자

- **음암종합사회복지관**
▷ 법인 충북복지재단
▷ 관장 채근숙 / 1월 1일자

-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 사무국장 유병주 / 1월 1일자

- **충주주덕제일지역아동센터**
▷ 센터장 나경은 / 1월 1일자

인사동정 이용 안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동(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시는 사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봉사단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신규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지역사회 봉사단이란?

재능을 나누는 전문봉사!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하여 8개 영역에 걸친 전문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전문봉사단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는 2025년 신규 지역사회봉사단을 모집한다. 지역사회봉사단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원하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으로 소외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

적으로 대처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형 자원봉사단이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VMS)에 등록된 '봉사단체'를 지역, 직능별, 보유 재능별로 구분하고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VMS에 가입되어 있는 2인 이상 자원봉사자로 기술 및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3월 중 모집 할 예정이다. 활동 혜택으로는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맞춤형 봉사활동 연계, 봉사활동 활동재료 지원, VMS 봉사실적 관리, 우수봉사단 표창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누리집(www.043w.or.kr) 또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043-234-0840)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만/평

도전

이창신 www.bokmani.com



새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는 을사년 되시기 바랍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 · 기관 종사자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 및 유관 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횟수: 주 3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충북복지넷' 홈페이지(www.043w.or.kr) 팝업창참고

[우양재단, 2025년 우양재단 마루·나래·다솜 신규 장학금 모집]
■ 지원내용: 생활비성 학업장려금 지원(이중 수혜 가능), 장학생 네트워킹(커뮤니티프로그램, 봉사활동, 졸업생 멘토링 등), 파고다어학원 수강 할인, 본 재단 대학원장학 신청자격 부여
■ 모집기간: ~2025.2.2.(일) 23시까지
■ 신청방법: 본 재단 홈페이지(www.wooyang-apply.org) 온라인 접수
■ 지원자격: (공통)나눔의 선순환을 꿈꾸는 청년, 학업 지속에 대한 열의가 있는 자, 본 재단 장학생활동(봉사활동/졸업생과의 만남/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에 관심 있는 학생, 전공무관
■ 지원금액: (공통)학기당 학업장려금 150만원 지원

[아름다운재단, 2025년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 지원대상: 설립 후 1년 이상 활동 경과한 비영리 공익단체(미등록단체 지원가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 정당 및 정당 부설기관
-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지원내용: 프로젝트당 최대 2500만원(운영인건비 최대 800만원 포함), 최대 20개 프로젝트 지원
■ 접수기간: ~2025.2.5.(수) 17시까지
■ 접수방법: 본 재단 홈페이지(gwon.net) 온라인 접수
■ 제출기한: 상시 접수(매주 1개 사연 발송)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추천 및 신청 가능하며, 사연자의 직접 신청 불가
■ 참고: babo.or.kr

복지정보 제공

[희망브리지, 위기가정 식사지원 공모사업]
■ 지원대상: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 중이며, 식사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학대, 방임, 갑작스러운 주 양육자의 사망 등) 내 아동
■ 사업기간: 2025.3.3.(월)~8.29.(금)
■ 지원예산: 기관당 최대 6000만원
■ 사업내용: 식사지원, 가족돌봄 프로그램, 사례관리
■ 신청기간: ~2025.2.7.(금) 18:00 마감
■ 신청대상: 아동 식사 지원 및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국내 사회복지기관
■ 제출방법: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후 구글독스에 단체정보 필수 기입
■ 참고: www.hopebridge.or.kr

[월드휴먼브리지, 2025년 새학기 신발 지원사업 '새 신을 신GO!'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신청 가능(*개인신청 불가)
■ 지원대상: ① 2025년 3월 초 · 중 ·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 · 청소년, ②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 · 저소득(중위소득 80%이하)가정 아동 · 청소년, ③ 다양한 사유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해 시설, 위탁가정(조손가정 포함)에서 생활하는 아동 · 청소년 (①번 필수, ②,③번 중 1가지 해당 시 신청 가능)
■ 신청인원: 17관당 최대 5명 신청 가능
■ 지원내용: ABC마트 기프트카드(7만원권)
■ 신청방법: ~2025.2.10.(월)까지 이메일 제출
■ 참고: whb.or.kr

[푸르메재단, 2025 메가스터디교육(주) 비장애형제 교육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장애 형제를 둔 중 · 고등학생 비장애 형제 · 자매(* 만18세 이상일 경우에도 학교에 재학중이면 신청 가능)
■ 지원항목: 고등학생-메가스터디 온라인 전과목 무료 수강권+교재개시 20만원, 중학생-엠베스트 온라인 전과목 무료 수강권+태블릿
■ 지원인원: 총 75명 선발 예정(중학생 35명, 고등학생 40명)
■ 지원기간: 2025년 3월~12월(최대 10개월)
■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

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지방행정 기관 등 사회복지 지원사업 담당자가 신청
■ 신청기간: ~2025.2.13.(목)
■ 참고: purme.org

[밀알복지재단, 2025년 MBC <불날의 기적> 장애위기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 신청대상: 아동 · 청소년을 포함한 2인 이상 가정 중, 1인 이상이 질병 · 장애가 있으면서 수술 · 치료가 필요한 가정
■ 지원항목: 수술비, 재활치료비, 약제비, 생계비, 주거개선비 등
■ 지원금액: 1가정 당 1500만원(방송 후 1개월 이내 지원 예정)
■ 신청기간: ~2025.2.13.(목) 18:00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발송
■ 참고: www.miral.org

[KBS강태원복지재단, 2025 위기가정 긴급발굴·긴급지원 사업 안내(2월)]
■ 신청대상: 전국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 기관/단체(마음단위 NPO 협약 체결 기관에 한함)
■ 지원대상: 위기상황으로 인해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
■ 지원내용: 위기가정에게 필요한 항목별 지원금 지원(1가정당 최대 500만원) 및 선정기관 사례관리 지원금 지원
■ 신청기간: 월 1회(1~15일) / 단, 12월에 한해 1~10일 지원 신청
■ 신청방법: 본 재단 홈페이지(www.kbsktw.com) 내 온라인 신청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5년도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진행일시: 3월 ~ 12월 (연중 신청가능)
■ 진행장소: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1층)
■ 진행대상: 초 · 중 ·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신청 인원은 회차당 20명 이내로 가능함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UD) 이론 교육, 유디체험관 및 주택체험관 견학

자원 봉사자 모집

▶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2.1 ~ 2.28
전화번호: 043-234-0840

▶ **어르신 사진촬영 보조**
관리센터: 휴먼케어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2.1 ~ 2.28
전화번호: 043-233-3629

▶ **경로당 배식 봉사**
관리센터: 명락노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2.1 ~ 2.28
전화번호: 043-648-3337

▶ **공유농장고 나눔지킴이 활동**
관리센터: 목령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2.1 ~ 2.28
전화번호: 043-216-3060

▶ **재가어르신 말벗한 배달**
관리센터: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활동기간: 2.1 ~ 2.28
전화번호: 043-238-3786

▶ **경로식당 업무 보조**
관리센터: 음성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2.1 ~ 2.28
전화번호: 043-883-2470

▶ **사무보조 업무**
관리센터: 충주시가족센터
활동기간: 2.1 ~ 2.28
전화번호: 043-856-2253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에 참여하세요!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등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류인력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 및 가계소득 증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대상 ▶ 근로자: 20세~75세 도민 누구나(외국인, 인근 시도 거주자 가능)
▶ 기 업: 제조업(중소, 중견),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경제적기업

근로 조건 ▶ 1일 6시간 이내 근무 (명절 등 인력 수요가 많을시 최대 8시간 가능)

사업 혜택 ▶ 근로자: 교통비(1일 1만원), 주휴 연차수당, 4대보험 적용, 급속 인센티브 20만원(3개월 만기 시)
▶ 기 업: 1일 최대 4.12까지 최저시급 전액의 40% 지원, 급속 인센티브 20만원(3개월 교육 유지 시)
※ 지원한도: 1인당 270일

신청 기간 ▶ 2025. 2.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문의 ▶ 청주·보은·증평·단양: 시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청주(253-8871), 보은(543-9174-5), 증평(838-4192), 단양(423-9925)
▶ 제천: 제천단양상공회의소(642-3114)
▶ 충주·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 한국산업진흥협회(222-0801)

